

# 여성 직장인에 더 가혹한 '코로나19'

광주, 1~5월 성별 인구·고용동향 구조조정 여파 여성에 몰려 여성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폭 남성 직장인의 2배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조정 여파가 여성에 몰려 광주지역 여성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폭은 남성의 2배에 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시기 광주지역 성별 인구·고용동향' 장간호에 담겼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확산한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성별 실업·인구현황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광주지역 여성 실업급여 수급자는 4만617명으로, 남성(3만6880명)에 비해 3737명 더 많았다.

올 들어 여성 실업급여 수급자는 2월을 제외하고 매달 남성 수급자보다 많았다. 1월 6477명을 시작으로 2월 6895명, 3월 8433명, 4월 9279명, 5월 9533명 등 매달 늘고 있는 추세다.

1월과 비교해 5월 수급자 증가폭은 여성 47.2%(3056명)으로, 남성 증가폭 24.7%(1583명)의 2배에 달했다.

5월 기준 여성 수급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에서 60대까지 고르게 분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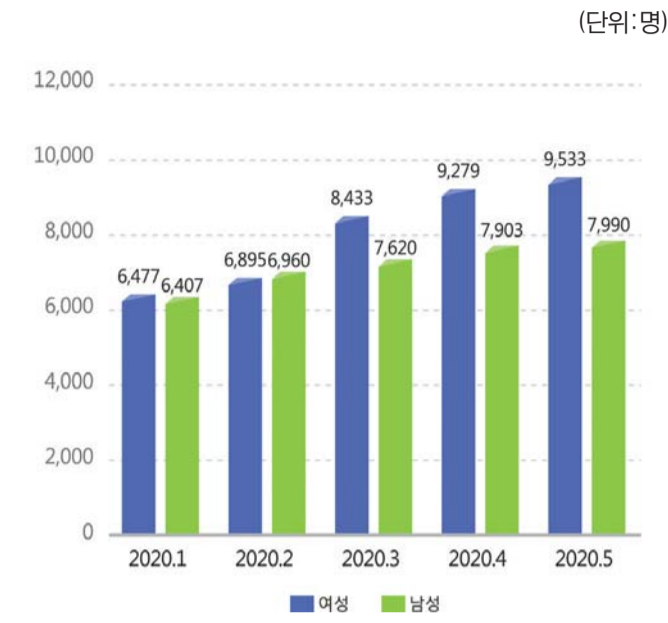
50대 수급자가 23.1%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40대(22.2%), 20대(20.8%), 30대(19%), 60대(14.5%), 70세 이상(0.3%), 10대(0.2%)가 뒤를 이었다.

남성의 경우 수급자는 60대(25.1%), 50대(23%), 30대(17.3%), 40대(16.9%)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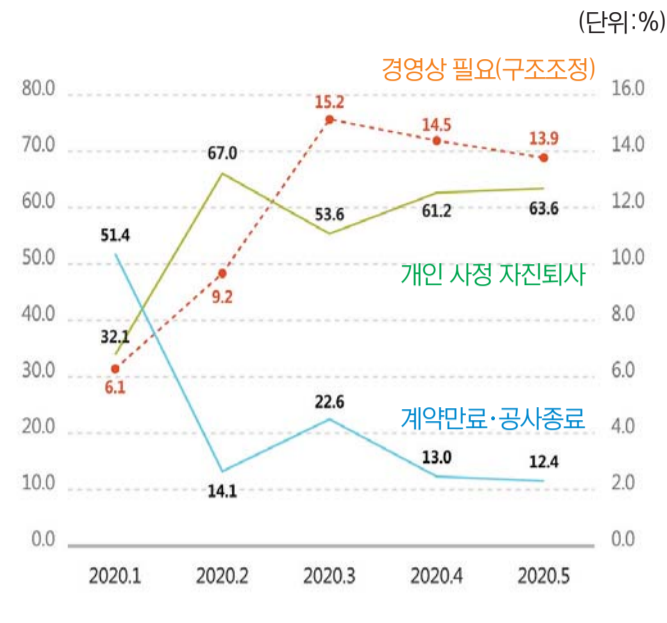
지난 1~5월 여성 수급자는 20대에서 50대까지 모든 연령에서 증가한 반면, 남성은 50대 이상에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고용한파가 여성에 집중된 데

■ 광주 성별 실업급여수급자 추이



■ 광주 여성 고용보험 상실 사유(3순위)



는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종과 직위를 가지고 있음에 원인을 둔다.

5월 기준 성별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가장 많이 나온 산업은 여성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870명), 남성은 '제조업'(1749명)이었다.

지난 1월에 대비해 여성 수급자 증가폭이 가장 높았던 산업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이 구조조정 감원 대상에 우선적으로 꼽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이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즉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그만 둔 비중은 지난 1월 6.1%, 2월 9.2%에서 지난 3월 15.2%로 급증했다.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비중은 4월(14.5%)과 5월(13.9%)에도 10% 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 여성의 구조조정 퇴사가 급증한 반면 남성의 구조조정 퇴사 비중은 9.4%에 그쳤다.

광주지역 여성 직장인들은 대체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육아휴직을 택하는 대신 육아기 단축근로를 택했다.

5월 광주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1410명으로, 1월(1400명)에 비해 0.7% 증가했다. 이는 전국 증가율(4%)의 4분의 1에

도 못 미치는 수치다. 광주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전국(6만8601명)의 2.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을 포함한 광주지역 육아휴직 사용자 수(1657명)는 8대 특·광역시 중 세종(602명)과 울산(1534명)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광주지역 여성 육아휴직자가 0.7%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남성 휴직자는 5월 기준 247명으로, 1월 대비 16%나 증가했다.

여성 직장인들은 제자리걸음에 그친 대신 여성 직장인들은 육아기 단축근로제를 선택했다. 이는 육아휴직보다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이 상대적으로 쉽고 급여가 보장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광주지역 육아기 단축근로를 선택한 여성은 120명으로, 1월(48명)에

비해 150% 급증했다. 남성 단축근로 사용자는 1월과 같은 5명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8대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66.4%)과 대전(124.7%) 등을 제외하고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광주지역 혼인과 출생 건수도 줄어 들었다.

광주지역 1~5월 혼인건수는 2444건으로, 1년 전보다 9.4% 감소했다. 출생아 수를 예측할 수 있는 '임상부 국민행복카드' 광주 신청 건수는 38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7.1% 줄어 들었다.

김영신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선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구조조정이나 계약만료 여성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퇴사 원인과 배경을 파악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며 일·생활 균형 제도 등에 대한 방안 모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신 연구위원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선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구조조정이나 계약만료 여성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퇴사 원인과 배경을 파악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며 일·생활 균형 제도 등에 대한 방안 모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신 연구위원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선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구조조정이나 계약만료 여성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퇴사 원인과 배경을 파악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며 일·생활 균형 제도 등에 대한 방안 모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신 연구위원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선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구조조정이나 계약만료 여성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퇴사 원인과 배경을 파악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며 일·생활 균형 제도 등에 대한 방안 모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60.54 (+12.30) ↓ 금리(국고채 3년) 0.805 (-0.005)  
 ↑ 코스닥 818.74 (+18.52) ↓ 환율(USD) 1181.20 (-2.50)

## NH농협은행 광주본부, 수해 성금·일손 돕기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본부장 최영·왼쪽 두번째)는 19일 광주시에 집중호우 피해 지역민을 위한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11일부터 30여 개 지점 직원들과 함께 피해복구 일손 돕기를 하고 있다. <농협은행 광주본부 제공>

## 금감원 광주전남지원, 곡성·구례서 금융상담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은 오는 21일과 24일 곡성·구례에서 대출 연장이나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종합 금융 상담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보증기금과 NH농협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민원 현장 접수 등이 있다. 금감원 각 지원에 설치된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도 집중호우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곡성과 구례, 남원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차례로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 상담을 원하는 집중호우 피해 주

민과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해진 장소에 주차된 '금융사랑방버스'로 찾아가면 된다. 상담 내용은 차량 침수피해 관련 보상,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상담, 금융민원 현장 접수 등이 있다. 금감원 각 지원에 설치된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도 집중호우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남지역 금융상담은 21일 곡성군 전 통시장 주차장과 24일 구례군 실내체육관 주차장에서 열린다.

금융 상담을 원하는 집중호우 피해 주

금융 상담을 원하는 집중호우 피해 주

## 예비창업자 등 '저작권 등록 수수료' 지원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지원사업'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으로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에서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예비창업자를 위해 마련됐다.

이용해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 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지역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1월 말까지 접수를 받으며, 예산 소진 때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용해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 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지역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1월 말까지 접수를 받으며, 예산 소진 때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난해 문을 연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는 저작권 상담, 교육,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소프트웨어(SW)관리체계 컨설팅, 저작권 활용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해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 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지역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1월 말까지 접수를 받으며, 예산 소진 때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난해 문을 연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는 저작권 상담, 교육,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소프트웨어(SW)관리체계 컨설팅, 저작권 활용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해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 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지역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1월 말까지 접수를 받으며, 예산 소진 때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난해 문을 연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는 저작권 상담, 교육,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소프트웨어(SW)관리체계 컨설팅, 저작권 활용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주·전남 인구 3542명 순유출 ... 수출 6분기째 감소

### 호남통계청 2분기 지역경제동향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6분기째 줄었고, 지난 2분기 이 지역에서 3542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분기 호남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4~6월(2분기) 수출액은 광주 27억 달러·전남 55억 달러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광주 23%, 전남 31.2% 줄어든 수치다.

광주지역은 승용차(-30.5%)와 기타 일반 기계류(-39.7%) 등 산업의 수출 부진이 두드러졌고, 전남은 석유제품(-54.5%)과 경유(-35.8%)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2분기 광공업 생산은 1차급속, 자동차 등의 생산이 줄어 광주(-14.4%)·전남(-3.5%)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고용률은 광주는 1년 전보다 하락하고 전남은 올랐다.

광주지역 고용률은 58.6%로 30대와 40대 등에서 하락하며 1년 전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전남 고용률은 20대와 40대 취업이 상승세를 이끌며 0.7%포인트 오른 64.0%로 집계됐다.

2분기 건설수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광주가 26.6% 증가했고 전남은 36.4% 감소했다.

지난 2분기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각 583명, 전남 2959명이 전출했다.

광주의 경우 10세 미만(232명)과 30대

대 등에서 하락하며 1년 전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전남 고용률은 20대와 40대 취업이 상승세를 이끌며 0.7%포인트 오른 64.0%로 집계됐다.

2분기 건설수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광주가 26.6% 증가했고 전남은 36.4% 감소했다.

지난 2분기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각 583명, 전남 2959명이 전출했다.

광주의 경우 10세 미만(232명)과 30대

(150명)는 순유입을 보였지만 50대(-312명)와 20대(-303명)에서 순유출이 발생했다.

관할구별로 보면 동구(728명), 광산구(695명), 북구(500명)는 순유입을 기록했고 남구(-1480명)와 서구(-1026명)에서 인구가 빠져나갔다.

전남에서는 50대(593명)와 60대(524명) 등이 순유입을 나타냈고, 순유출은 20대(-3206명), 30대(-538명) 등에서 나왔다.

광양시(558명), 무안군(269명) 등은 인구가 증가했고 순천시(-783명), 목포시(-663명) 등에서는 인구가 순유출했다.

광양시(558명), 무안군(269명) 등은 인구가 증가했고 순천시(-783명), 목포시(-663명) 등에서는 인구가 순유출했다.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